

10. 스가랴 - “공동체의 회복”

스가랴 9장 9절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양이 네게 앞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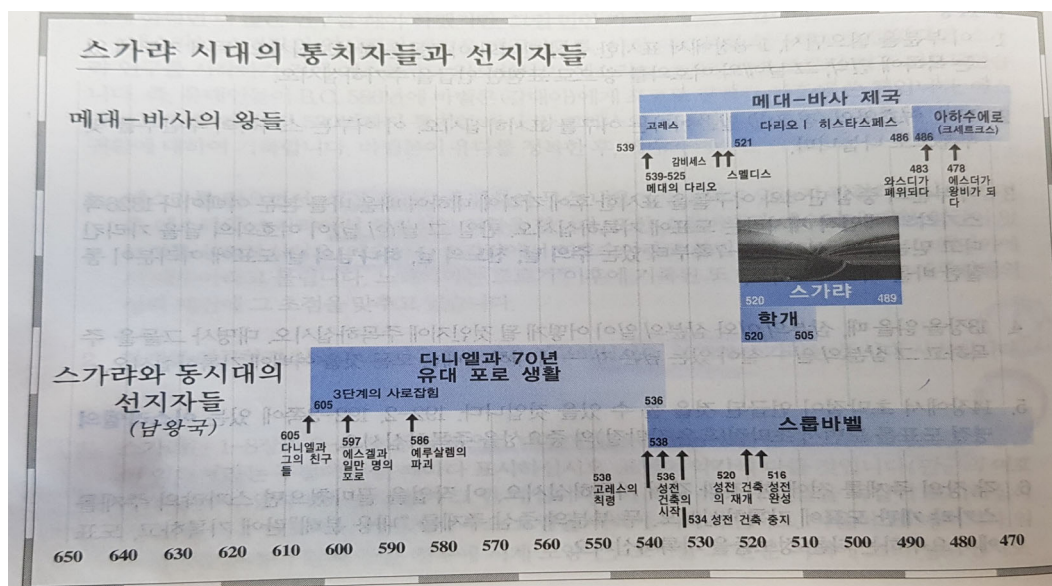
스가라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도 있죠.

그 때 우리에게는 ‘왜?’라는 의문이 듭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면 물음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왜?’라는 물음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도표를 통해 보면,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는 세계사적으로 고레스에 의해 바사 제국이 세워지고 평화의 시대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된 땅에서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바사제국 식민지들에 대하여 귀환을 허락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은 초라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가랴는 학개와 동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지난 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시작 됐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가랴는 백성들의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 회복에 대한 소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스가랴는 지난 주 ‘학개’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구체적인 성전건축과 예배자의 삶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포함해 14장의 긴 내용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가랴의 예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멈춘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 재건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성전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 구원을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로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힘들고 버겁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지도아래 예루살렘에 돌아온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개와 더불어 낙심한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스가랴의 주제는 당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체의 말씀을 다 다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택한 본문 한절은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무조건적인 구원의 선포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행한 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이 베풀어 질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이 있는데,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니라’라는 말이 계속 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이지만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 임하여’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임한다’라는 말이 NIV 성경에 보면 ‘come to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와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한 번 쯤 들어봤음직한 이야기죠.

한 초등학생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천둥과 번개도 칩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우산을 들고 아이를 마중 나갑니다.

얼마나 무서울까?

그런데 저기서 걸어오는 아이가 천둥과 번개 속에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번개가 치는 데 웃으며 평안한 것이죠.

엄마가 우산을 가지고 뛰어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번개가 치는데 안 무서워?”

그러자 아이가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번개가 칠 때 일부러 웃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 사진을 찍고 계시잖아!”

조금 무리한 적용일까요? 천둥과 번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순간이지만,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미소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스가랴 말씀은 학개 말씀과 영적 흐름을 같이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 말씀에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학개에게 있어서 ‘회복’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성전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과 더불어 이스라엘이 잊고 있었던 절기들이 회복되었는데,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스가랴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당연히 따라 나와야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회복의 두 번째는 바로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고통과 심판의 원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과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스가랴 1장 2-4절.

2.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3.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4.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를 알면, 그 진노를 풀 방법도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의 아버지 세대들이 행한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거두셨던 자비의 얼굴을 다시 돌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의 자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4절.

4.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롭지 못했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이 죄의 근원이라면, 불의와 압제는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 조상들이 행한 구체적인 악행들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스가랴 7장 9-12절.

9.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공휩을 베풀며

10.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스가랴 8장 14-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6.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일이라 하시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은 종려주일 설교 본문으로 자주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에 경험하는 이스라엘의 암울함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었다면, 지금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뿐입니다.

선지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 합니다.

어떤 이에게 심판은 두려운 것이며, 또 어떤 이에게 심판의 날은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짓값을 치르게 될 것이며, 어떤 이에게는 억울한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우리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 자신들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한 생각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는 행동 말입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가산을 이방인에게 탕진한 자녀를 처벌하는 독특한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동체의 규율을 어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케차차’의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 의식에 대하여는 피터 윌슨의 책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간단했다. 마을 사람들이 큰 항아리를 가져와 태운 곡식을 가득 채운 다음, 죄를 지은 사람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 동안 사람들은 “아무개는 자기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외친다. 그리고 이후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본체만체 했다.

케차차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기 위한 종교 의식이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이런 결말을 기대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가 마음으로는 아들을 용서해줄지라도,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리라 믿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사람들의 기대를 깨뜨리고 선수를 친 것입니다. 수치스런 의식대신 새로운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24절.

22. 아버지는 중등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밭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 대하여 수치스런 의식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하시는 의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시온의 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중,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이전의 왕과는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당했던 아픔들이란, 왕들로 인해 압제를 당했던 기억입니다. 왕들은 백성들의 것을 약탈해 갔고, 백성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배를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새로운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왕’입니다.

모든 왕들이 화려한 말을 타고 들어갈 때, 구원을 베푸실 메시야는 불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한없는 자비하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방식의 구원과 심판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방식과 흔히 보이는 교회에서의 방식과도 다른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와 용서에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돌아오심을 환영합니다. 용서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을 주시해 보겠습니다.’ 혹은,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허용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결길로 가서 우상을 숭배했던 과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아들’ ‘2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은 과거의 죄 때문에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시온의 딸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우리의 과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마무리는 가능합니다.

회복의 기쁨을 보라!

스가랴 선지자는 회복의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9.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실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라를 빼앗겨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찾은 기쁨의 정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시트콤 중에 “김씨네 편의점”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국인 가정을 중심으로 이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입니다.

그 가족의 중심에는 이민 1세대인 아버지가 있고, 그 가정과 편의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야기죠. 시즌 1의 3편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시즌1의 3화 내용확인](#)

김씨네 편의점 주인인 아버지가 가게 옆에 세워둔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라고 딸에게 말합니다. 빨리 신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가 일본제 ‘도요타’였기 때문입니다.

김씨네 편의점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찾아온 남자친구에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광복절’이 언제인지 물었고, 남자친구가 ‘1945년 8월 15일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서로 사귀는 것이 괜찮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 장면을 찾아보면 흥미로울 듯) [☞시즌1의 1화 내용확인](#)

김형석 교수가 쓴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에 보면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2002년에 세상을 떠난 분이니 아주 오래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한번은 손기정 옹이 종로에 있는 어떤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이유인즉, 근래 당신이 상을 받아서 약간의 상금을 받았는데 먼저 세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납세절차를 물으러 온 것입니다. 그때 세무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연세도 높으시고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니 신고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자,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사는 동안 대한민국이 주는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공짜 돈이 생겼을 때 세금 좀 내고 가면 내 마음이 편할 것 아닌가, 날 좀 도와주게.”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 주었더니 너무 액수가 적다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없느냐고 다시 묻더랍니다. 세무사는 다시 세금을 많이 내는 쪽으로 계산을 해드렸고, 그제야 얼굴이 환해져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세무사인 최 선생이 김형석 교수에게 한 말입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시니까, 나라 없는 때에 사신 분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나라 없는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

오랜 시간을 타국에서 포로로 살았던 사람들,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에서 나라를 일구고 성전을 재건하고 집을 지어야 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기쁨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인생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소망의 소식을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회복이 우리의 자격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거나 회복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와 다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윗사람에게 야단을 맞는 태도인데요.

한국 같으면 야단맞는 학생이 고개를 푹 수그리고 혼내는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꼭 반항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혹시 [친구]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인공 장동건이 선생님께 야단을 맞으면서도 반항적인 눈빛으로 얼굴을 들고 있다가 선생님께 더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서구에서는 야단을 맞는 학생이 고개를 들고 선생님을 응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합니다.

훈계하는 사람의 훈계가 끝날 때까지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면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한 서구 문화가 기독교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죄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인해 책망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

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자신감이나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하다면, 얼굴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회복과 용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책과 채찍은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뤄지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 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편 27편 8-9절 말씀.

8.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엿나이다

9.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니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주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이 영어의 ‘seek’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 얼굴을 들이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격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으나,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